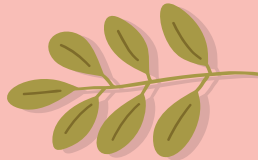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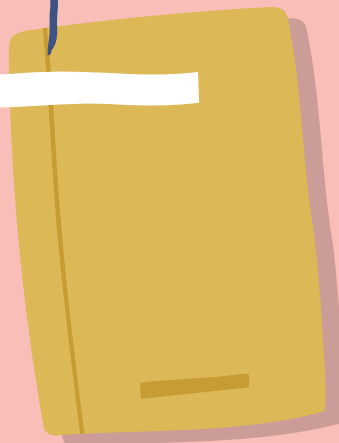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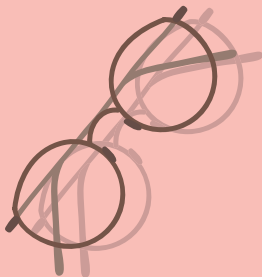


쓰고 담다, 쓰고 닦아 가다
쓰담쓰담 1

하루 세 번 따라 쓰기



쓰담쓰담: 쓰고 담다, 쓰고 닮아 가다 1

하루 세 번 따라 쓰기

발행일 2024. 10.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엮은이 백슬기

편집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최종성, 최지혜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4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저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쓰담쓰담: 쓰고 답다, 쓰고 닦아 가다

〈쓰담쓰담: 하루 세 번, 하루 세 줄〉은

하루에 한 장씩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보며

멋진 글귀들을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겨

온전히 한 권에 담을 수 있게 한 책입니다.

한 자 한 자 톱박톱박 따라 쓰며, 멋진 글귀들을 닦아 갈 수 있도록

풍부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쓰담쓰담 1: 하루 세 번 따라 쓰기〉는

문해 학습자가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고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담, 세계의 음악, 지역의 이름난 곳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

한 권으로 풀어 낸 익힘책입니다.

차례

I 알수록 재미있는 속담

- 1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속담 3
- 2 건강과 속담 8
- 3 배움과 속담 13

II 그 시절, 그 노래

- 4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21
- 5 추억 속의 노래 29
- 6 세계의 노래 36

III 방방곡곡 글쓰기 여행

- 7 우리 지역의 유래 47
- 8 매력 있는 우리 동네 54
- 9 함께 떠나는 우리나라 여행 61

I

알수록 재미있는 속담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재미있는 속담이 많습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짧은 문장의 비유적인 말입니다. 속담에는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속담, 건강과 속담, 배움과 속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속담을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속담을 읽고 써 보면서 속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속담



명절_일러스트_018 by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생각하기

우리나라 고유의 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고 있는 고유의
날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명절_일러스트_017 by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동지에 팔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정월 대보름날 눈이 오면 풍년이다.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떠오르는 추억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설	추	석	한	가	위

- 우리나라 고유의 날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동지에 팔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정월 대보름날 눈이 오면 풍년이다.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동	지

대	보	름

단	오

3

나아가기

-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넣어 봅시다.



보기

추석 한가위 음식

동지 대보름 단오

- 1) 정월 ()날 눈이 오면 풍년이다.
- 2) ()에 팔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 3) 오월 ()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 4)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 같아라.
- 5) 설은 질어야 좋고, ()은 맑아야 좋다.
- 6)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은 한가위처럼

2 건강과 속담



출산_육아_가족_일러스트_015 by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생각하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건강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복 중에는 건강 복이 제일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감기는 밥상머리에서 물러간다.

밥이 약보다 낫다.

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가져라.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건강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복 중에는 건강 복이 제일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감기는 밥상머리에서 물러간다.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건	강	중	다	감	기

- 건강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밥이 약보다 낫다.

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가져라.

--	--	--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약	낫	다	쉽	다	부	럽	다

3

나아가기

1.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자신만의 속담을 만들어 봅시다.

1) 복 중에는 () 복이 제일이다.

2) ()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가져라.

3) ()이 약보다 낫다.

2. 자신만의 속담 한 가지를 소리 내어 읽고 그 의미를 소개해
봅시다.*

3. 동료 학습자가 소개한 속담 중 마음에 드는 속담을 옮겨 쓰고,
마음에 새겨 봅시다.

* 3번 활동을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발표하는 속담을 칠판에 옮겨 써 주세요.

3

배움과 속담



생각하기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배움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낮 농고 기억 자도 모른다.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운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배울 때 필요한 자세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배움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낮 농고 기억 자도 모른다.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배	움	풍	월	농	다

- 배움과 관련된 속담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운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	--	--	--	--	--

- 낱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공	부	늙	다	듣	다

3

나아가기

- 낱말 카드를 읽고 관련 있는 속담을 써 봅시다.*

1)

낮

기억

2)

서당

풍월

3)

하나

열

* 학습자 스스로 쓰기가 어렵다면 속담을 함께 말한 후에 교사가 칠판에 제시한 속담을 따라 쓰도록 해도 좋습니다.

II

그 시절, 그 노래

노래 가사에는 사랑,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릴 적 즐겨 부르던 추억의 노래가 한 곡씩 있을 것입니다. 이 단원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추억 속의 노래, 세계의 노래를 담았습니다. 노랫말을 함께 읽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낱말과 문장을 익혀 봅시다.

4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생각하기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고유의 음악을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우리나라 민요 <닐리리야>의 노랫말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백옥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 웬 말인가
닐닐리리 닐리리야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우리나라 민요인 <닐리리야>의 노랫말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백옥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 웬 말인가

닐닐리리 닐리리야

- 노랫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밝히다	잊었다	웬 말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돌아온다

백옥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 웬 말인가

- 우리나라 민요인 <군밤타령>의 노랫말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어얼싸 돈바람 분다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우주강산에 어얼싸 저 달이 밝아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 산 저 산에 어얼싸 흰 눈이 온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금수강산에 어얼싸 새봄이 왔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룰 밤이로구나

- 노랫말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바람	밝다	흰 눈

바람이 분다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이 산 저 산에 흰 눈이 온다

금수강산에 새봄이 왔네

3

나아가기

1. 노랫말을 다시 읽으며, 흥겹게 민요를 불러 봅시다.

굿거리장단

<받는소리>



<메기는소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2. 노랫말의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을 넣어 나만의 노랫말을 만들어
봅시다.

[1절]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이 다시 돌아온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2절]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 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 웬 말인가
닐닐리리 닐리리야

3. 나만의 노랫말로 민요를 흥겹게 불러 봅시다.

5

추억 속의 노래



생각하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추억 속의 옛 노래를 생각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노랫말을 읽으며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으며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2

따라 쓰기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가사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가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강변	금모래빛	뒷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진달래꽃>의 가사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농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가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진달래꽃	놓다	밟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3

나아가기

1. 내가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를 소개해 봅시다.

2. 1번에서 소개한 노래의 가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3. 동료 학습자들이 소개한 노래 중 우리 학급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 봅시다.

6 세계의 노래



생각하기

세계의 노래를 듣고,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일지 상상해 봅시다.*

* 교사는 에델바이스 등 외국의 노래나 동요를 준비해 들려줍니다.

1

읽어 보기

- 노랫말을 함께 읽어 봅시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어 주네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속의 꽃이여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세계의 노래 <에델바이스>의 가사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어 주네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속의 꽃이여

- 가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젓어	귀여운	빛나는

아침 이슬에 젓어

눈처럼 빛나는 순결

우리들의 자랑

마음속의 꽃이여

- 세계의 노래 <도레미송>의 가사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작은 솔방울

라는 라디오고요

시는 졸졸 시냇물

다 함께 부르자!

- 가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도화지	예쁜	시냇물

도는 하얀 도화지

파는 예쁜 파랑새

술은 작은 술방울

다 함께 부르자!

3

나아가기

■ <도레미송> 노래를 들어 봅시다.*

도레미송

도 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5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란색

9 술은 작은 술방울 라는 라디오고요

13 시는 졸졸 시냇물 다함께 부르자

* 교사는 한국어 가사로 된 '도레미송' 노래를 준비해 들려줍니다.

2. 분위기와 관련된 낱말 카드를 읽어 봅시다.

밝은

차분한

편안한

신나는

우울한

희망찬

급한

느린

3. <에델바이스>와 <도레미송>을 다시 듣고 각 노래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써 봅시다.

①	에델바이스	
②	도레미송	



방방곡곡 글쓰기 여행

좋은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유래, 매력 있는 우리 동네, 함께 떠나는 우리나라 여행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글쓰기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여행에 관련된 글을 읽고 써 보고, 나만의 여행 코스를 소개하기도 하며 글쓰기 여행을 즐겨 봅시다.

7 우리 지역의 유래



생각하기

우리 지역인 서울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알고 있는 서울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우리 지역 서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 역사를 알아봅시다.



출처: 리움미술관(<https://www.leeumhoam.org/leeum/collection/traditional/142?params=Y>)*

서울이라는 이름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하였다. 서라벌은 신라의 수도였다. 그 이후 서라벌이라는 지명은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울이라는 말로 변했다고 한다.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서울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 <경기감영도>의 일부

2

따라 쓰기

- 서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하였다. 서라벌은 신라의 수도였다. 그 이후 서라벌이라는 지명은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울이라는 말로 변했다고 한다.

삼국 시대에 서울은 위례성이라고 불리었다. 고려 시대에는 남경으로 불리다가 한양부로 바뀌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한성부라고 불렀다.

* 이 단원의 본문은 『술술 이야기 읽기 3: 서울 이야기』에서 발췌 후 일부 수정한 것임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서울	신라	바뀌었다

서울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에는 서울이라는 말로 변했다.

고려 시대에 한양부로 바뀌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 서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었다. 해방 직후에는 서울, 경성, 한성 등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그러다가 1946년 서울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9년에 서울이 특별시로 정해졌다.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해방	대한민국	특별시

서울, 경성, 한성 등이 함께 쓰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서울이 특별시로 정해졌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3

나아가기

- 물음에 알맞은 답을 글에서 찾아 써넣어 봅시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었다. 해방 직후에는 서울, 경성, 한성 등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그러다가 1946년 서울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9년에 서울이 특별시로 정해졌다.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 1) 해방 직후에 사용된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
- 2) 서울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년
- 3) 서울이 특별시로 정해진 것은 언제인가요?
()년

8

매력 있는 우리 동네



북촌한옥마을 by 지켜쥬,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생각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매력을 생각해 보고, 동료 학습자와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북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동네의 매력을 생각해 봅시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하며 전통 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와 민속 자료가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내가 생각하는 북촌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서울한옥포털 참고(<https://hanok.seoul.go.kr/front/kor/town/town01.do>)

2

따라 쓰기

- 북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서울에서 한국다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까? 한국의 옛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일 것이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하며, 전통 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 지역이다. 이곳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에서 ‘북촌’이라고 불리었다.

* 이 단원의 본문은 ‘비지트서울(Visit Seoul)’과 ‘서울한옥포털’을 참고해 작성한 것임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북촌	전통 한옥	윗동네

한국의 옛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 한옥이 밀집해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 지역이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

- 북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북촌한옥마을은 600년 전부터 양반층이 살던 곳으로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있다.

북촌한옥마을에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들이 남아 있다. 많은 문화재와 민속 자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옥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거리가 많아 매력적인 관광지로도 손꼽힌다.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문화재	박물관	관광지

주민들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있다.

많은 문화재와 민속 자료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

매력적인 관광지로도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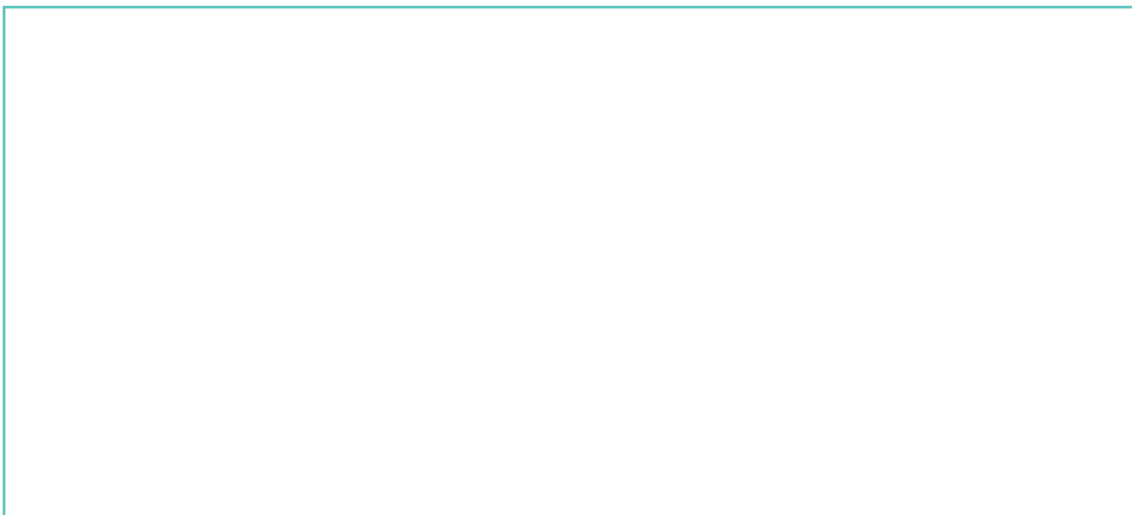
3

나아가기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인가요?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3. 2번에서 소개한 곳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9 함께 떠나는 우리나라 여행



생각하기

내가 가 보고 싶은 우리나라 여행지는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우리나라 여행지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가 가 보고 싶은 곳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역사, 문화,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고유의 매력을 가진 여행지가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바뀌는 여행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우리도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 밑줄 친 낱말을 다시 읽고, 가장 즐거웠던 여행을 떠올려 봅시다.

2

따라 쓰기

- 담양에 관한 글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담양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대나무가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식영정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죽녹원에서는 대숲을 구경하며 걷기도 하고, 땃잎의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죽림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죽녹원에서 죽로차를 마시며 대나무와 땃잎의 향기를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담양	관광지	대나무

담양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죽녹원이 있습니다.

대숲을 구경하며 걷습니다.

대나무와 땃잎의 향기를 즐겨 봅시다.

- 강릉에 다녀온 기행문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지난여름 가족들과 강릉에 다녀왔다. 강릉은 강원도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서울보다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다. 오래전부터 가 보고 싶었던 정동진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강릉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순두부도 먹었다. 가족들과 경포대를 구경하고 해변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다.

-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봅시다.

강릉	강원도	시원하다

가족들과 강릉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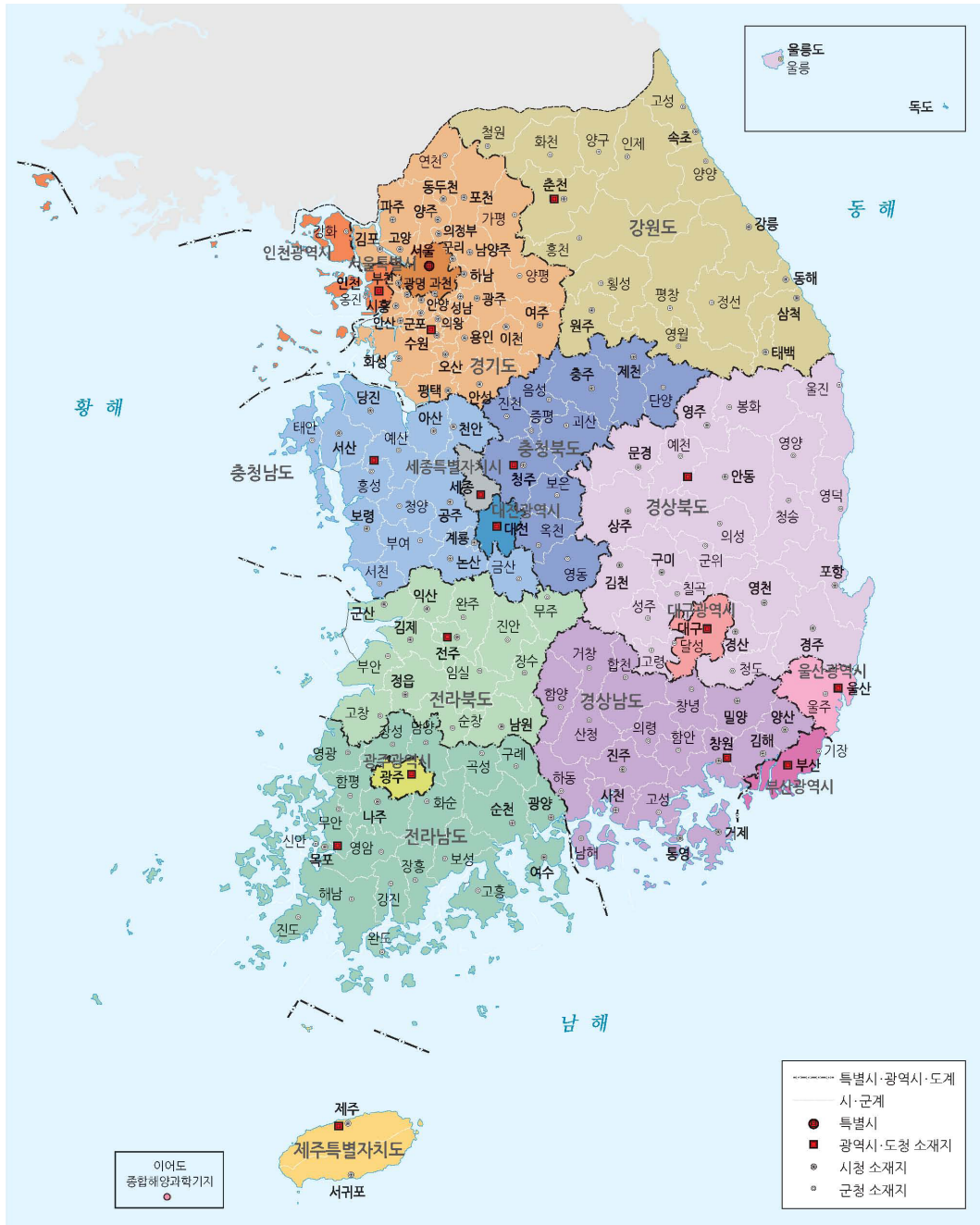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다.

정동진역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3 나가기

1. 아래 지도를 보고 내가 다녀온 적이 있는 지역을 골라 봅시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022).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

2. 내가 다녀온 지역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에 대해 써 봅시다.

다녀온 지역	
인상 깊었던 곳	
인상 깊었던 이유	

3. 2번에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학습자들에게 여행지를 소개해 봅시다.